



2022년 10월 독일 프라이부르크 선교편지

- 김종현 설공주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사역, MK사역, 유럽방송사역, 독일현지인협력사역, 성경공부사역)

“네그란 나바쉬 نگران نبش 두려워하지 마라”

#1. “네그란 나바쉬 نگران نبش negran nabash 두려워하지 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

이란에서 독일로 일하기 위해 왔던 ‘파티메(사진 중앙 머리를 민 자매)’는 젊은 나이에 림프종 암에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 돈도 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절망하면서 자신을 포기해가던 중, 같은 회사를 다니는 교회 집사님 부부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인 파티메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파티메가 처음 교회에 왔던 날부터, 수시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집을 심방할 때도 두 손을 잡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 다음 만날 때마다 페르시아어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네그란 나바쉬, 네그란 나바쉬)’라고 말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항암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이렇게!! 놀랍게도 건강하게 의사로부터 갑자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어렵게 온 파티메의 어머니(사진 중앙 파티메 옆)도 놀라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온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완치된 파티메와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파티메가 이제 집사님 부부가 선물로 준 성경책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한국 사람 말고도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2. 학원선교를 위한 첫걸음 - 설공주 선교사



아이 셋을 키우는데 10년을 보내고, 그래도 꾸준히 독일을 공부했던 아내 설공주 선교사가 드디어 독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어, 졸업하게 되면, 학교나 교회에서 기독교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기독교교육학 학사와 석사를 공부한 것을 독일에서 인정해주어서 나머지 학점과 이곳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 등만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서,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십이 다 되어서 시작하게 된 학업에 적잖은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과정

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제목 : 설공주선교사가 독일어와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매 학기 필요한 등록금(학기당 1500유로/한화 200만원 정도-저희 주(바덴뷔르템베르크 주)만 대학 등록금을 받습니다...ㅠ.ㅠ)이 채워지게 하소서>

#3. “김목사님, 저희에게 기도제목을 주세요!” -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도의 집 협력사역

저희 도시에 세계를 위해 24시간 기도하는 독일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는데, 이곳 게으르게 노우드 목사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여 방문하여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우드 목사는 북한에 관한 소식과 기도제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 했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사진과 같이 옆에 작은 예배당에서는 기도인도를 하는 또 다른 목사님과 찬양밴드가 함께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섬겼던(탈북민들이 독일어를 몰라서 한국어 통역을 돕거나, 특히 환자들이 병원을 가는 것을 돕거나, 암환자 탈북민을 찾아가 살피는 일 등) 이곳에 온 탈북민들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하였는데, 노우드 목사는 한인교회 목사가 독일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관한 기도제목을 전해주면 자신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여, 지난달부터 북한과 관련한 기도제목을 전달해주는 협력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현지사역단체들과 더 깊이 교류하며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소서>

#4.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사람 세우기

중동, 아프리카 등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기숙하며 공부하고 있는 칸던 BFA(Black Forest Academy)에는 3~40명의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매년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곳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서기영 선교사)이 계신데, 그분은 캄보디아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MK들을 섬기는데 같은 마음이 있어 칸던선교팀장으로 세워드리고 칸던(Kandern) 현지에서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동역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닫혔던 학교의 문도 열리고, 그분과 함께 칸던의 선교사 자녀들을 좀 더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선교사 자녀들이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다음세대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 되게 하소서>

#5. <테마로읽는성경 - 주 3회 성경공부사역> / <유럽새벽기도방송 풀위의이슬 850회 돌파>

현재, 화요일과 수요일은 <내가 믿다고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목요일 <테마로읽는성경 - 예언서와 친구약중간기>는 지난주 16주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럽새벽기도방송<풀위의이슬>은 850회를 넘어섰습니다.

<기도제목 : 성경공부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방송사역을 통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6.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인교회 소식 - <쾰빙글리 종교개혁 탐방>

독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유럽의 신앙 유산을 잘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교인들을 데리고 종교개혁 탐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지, 칼뱅 종교개혁지에 이어 이번에는 쾰빙글리 종교개혁지를 운전하며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몸살이 나서 한 일주일 고생하긴 했지만,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주여, 유럽땅이 다시 복음의 능력,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7. 그 밖의 기도제목

- 선교사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소서.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몇 배 이상 오르고, 올 겨울, 길게는 내년까지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환율도 오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돕는 자를 많게 하소서.
- 새가족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매일 <한 줄 말씀 기도>를 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각자의 할 일들에 지혜와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